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특성에 대한 연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정치학 박사학위론문)

로씨야원동지역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협회 위원장

로씨야원동국립종합대학 학부장 부교수, 철학석사

로씨야련방공산당 연해변강위원회 사상담당비서

겐나지 뻬뜨로비치 꿀리꼬브

20 세기로부터 21 세기로 넘어온 시기 국제관계체계에서 일어나고있는 커다란 변화들은 국가들과 연구집단들로 하여금 오랜기간 그늘속에 가리워져있던 문제들을 정면에 내세우고 우선시하게 만들었다.

로씨야와 국경을 접한 동북아시아나라들에서 진행되고있는 정치적과정은 오늘 리론적의의를 가질뿐아니라 정치적 및 실천적견지에서도 매우 절박한 의의를 가진다. 이 나라들가운데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직접적으로는 로씨야의 원동지역과 린접하고있는 나라들의 안정, 간접적으로는 전 동북아시아지역의 안정을 위한 열쇠로 된다고 매우 확신성있게 말할수 있다.

론문에서 제기하고있는 문제의 절박한 원인을 몇가지로 보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씨야와 국경을 접하고있는 동쪽의 이웃나라이다. 이 국경은 오랜 기간 평화와 안정을 고수해왔으며 로씨야는 앞으로도 평화롭고 안정된 정세를 보존하는데 깊은 리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조선에서의 혁명과 건설이 자기의 특성을 가지고있다는것이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은 연구학자의 주의를 끌었다. 리론의 진실을 가르는 척도는 하나, 실천이다.

론문의 연구목적은 현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특성에 대한 문제이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론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과 강화발전에 대하여,

둘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특성을 규정하는 사상적기초에 대하여,

셋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실에 대하여 밝히는것이다.

론문의 장, 절체계는 다음과 같다.

머리글

제 3 절. 선군으로 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는 강국

맺는글

제 1 장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과 강화발전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제 1 절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건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고 강화발전시키신 주체형의 혁명적당인 조선로동당과 참다운 인민의 정권인 공화국정권, 무적의 인민군대가 있고 수령님께서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키워주신 우리 인민이 있기에 우리 혁명은 지난 세기에 이어 오늘도 상상을 초월하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력사의 기적을 창조하며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력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극적인 사변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함과 결부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한생을 오로지 조국의 독립과 정의로운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 바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평범한 가정출신이 아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대로 애국자의 가정에서, 이미 외래침략자들과의 싸움에서 위훈을 세워 이름을 날리고 투쟁전통으로 유명한 가문에서 탄생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4 살되시던 해에 나라를 해방하기 위한 투쟁의 길에 나서시여 학생들의 혁명운동을 지도하시였으며 투쟁과정에 감옥에 투옥되시였다. 석방된후 조선의 공산주의운동발전에 거대한 기여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본강점자들을 반대하는 싸움에서

주력군으로 된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인민혁명군은 일제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나라를 해방하였다. 쏘련에서는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하여 존경심을 가지고 쓰군하였다. 이미 1937 년에 잡지 《태평양》에는 북부조선에서의 빨찌산운동에 대한 보고서가 실렸는데 거기에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지휘관들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가 가장 특출하다고 씌여져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동방에서 처음으로 되는 인민민주주의국가로 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로서 세계력사에 기록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46 년 2 월 8 일 평양에서 력사적인 북조선민주주의 정당, 사회단체, 행정국, 인민위원회 대표협의회를 소집하시였다. 대표협의회에서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를 조직하고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반영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민주주의정권을 사회주의정권으로 강화발전시키시기 위하여 1946 년 11 월 3 일 조선인민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도, 시, 군 인민위원회 위원선거를 빛나는 승리에로 결속하신데 이어 1947 년 2 월 평양에서 북조선 도, 시, 군 인민위원회대회를 소집하시였다. 대회에서는 최고주권기관인 북조선인민회의를 창설하였으며 북조선인민회의는 중앙정권기관을 조직하기 위한 제 1 차회의를 소집하였다. 회의에서는 전체 조선인민의 의사와 념원에 따라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해방후 인민정권을 세우시고 새 조국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였다.

1948 년에 이르러 전조선적인 통일적중앙정부를 세우는것은 조선혁명과 조선민족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심각하고도 절박한 문제로 나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민족의 단합을 실현하는데서 남조

선에 있는 애국적인 정당, 사회단체들과의 련합을 실현하는데 선차적의의를 부여하시고 남북조선 제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들의 련석회의를 소집할것을 발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발기하신 남북조선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는 1948년 4월 19일부터 23일에 걸쳐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천여만명의 당원들과 맹원들을 가진 북과 남의 정당, 사회단체대표 수백명이 참가하였다. 4월남북련석회의는 참가자들의 구성이 복잡하고 서로의 정견과 신앙은 달랐으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선통일과 통일적중앙정부수립로선의 정당성과 광폭의 통일전선정책의 무비의 견인력, 수령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애국, 애족의 리념과 한없이 넓은 도량으로 하여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결속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한 토대우에서 1948년 8월 남북총선거를 실시하도록 하시고 그 빛나는 승리에 기초하시여 1948년 9월 평양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를 소집하시였다. 최고인민회의는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반영하여 그리고 온 겨레의 절대적인 지지와 찬동속에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 내각수상으로 높이 추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해방직후 제시하신 주체적인 건국로선의 빛나는 승리였으며 지난날 망국노의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여온 조선인민을 자주독립국가의 존엄있는 인민으로 되게 하고 세계지도우에서 빛마저 잃었던 조선을 국제무대에서 당당한 자주권을 행사하는 국가로 되게 한 특기할 력사적사변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신 다음에도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국가건설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고 사회주의국가건설위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쏘련과 가장 긴밀한 련계를 맺고계시

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1949년 3월 모스크바를 방문하시여 쓰딸린과 여러차례 상봉하신것을 비롯하여 많은 중요한 상봉들을 하시였다. 결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쏘련사이 경제,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였는데 이 협정은 두 나라사이의 관계발전의 기초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61 년, 1984 년과 1986 년 또다시 쏘련을 방문하시였는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의의가 큰 방문이였다. 로씨야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쏘베트나라, 쏘련공산당원들의 친근한 벗으로 기억하고있으며 그이의 공적을 평가하여 레닌훈장을 수여해드리였다.

제 2 절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강화발전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계승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강화발전시키시고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오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사회주의국가건설에서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할수 있는 공고한 체계의 확립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국가건설에서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한 독창적인 로선을 내놓으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국가건설에서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하여 또한 국가기구체계를 국가정권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령도를 보장할수 있게 바로 세우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새로운 발기에 의하여 1972 년 12 월 27 일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 5 기 제 1 차회의에서 채택된 사회주의헌법에는 국가기구체계가 국가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령도를 철저히 보장할수 있게 규제되였다. 1972 년사회주의헌법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 국가의 수반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한다는것을 규정하였으며 국가의 최고직책으로서의 주석의 임무와 권한을 규정하였다. 새로운 국가기구체계가 확립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서 국가주석으로 추대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권위와 위신이 백방으로 보장되게 되였으며 국가에 대한 그이의 유일적령도가 확고한 기구적담보를 가지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의 령도가 사회주의국가의 생명선이라는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시고 국가에 대한 당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1990 년대 말엽에 이르러 조선에서는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국가기구체계를 내오는것이 더는 미룰수 없는 절박한 요구로 제기되였다. 당시 남조선당국자들은 외세와 야합하여 《북의 붕괴와 종말이 시간문제》라고 떠들면서 군비를 확장하고 군사연습을 미친듯이 벌리고있었고 재침열에 들뜬 일본군국주의자들까지 이른바 《평화헌법》수정과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떠벌이면서 여기에 합세하였다. 적들의 발광적인 전쟁도발책동으로 하여 조선에서는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긴박한 정세가 조성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성된 정세를 깊이 통찰하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하기 위해서는 군대를 가지고 혁명을 해야 하며 국방위원회가 국가기관들가운데서 기본이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사회주의헌법의 수정보충을 통하여 국방위원회를 중추로 하는 새로운 국가기구체계를 확립하도록 세심히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사회주의헌법의 수정보충을 통하여 또한 국방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하여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군사를 중시하고 군대를 가지고 혁명을 하기 위하여서는 국가기구조직에서 국가방위와 국가관리권능을 가르고 국방을 최우선시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종전 헌법에서 국방위원회가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다.》라고 되여있던것을 《전반적국방관리기관》이라는 내용을 더 첨부하여 수정보충된 헌법에서는 국방위원회가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국방관리기관이다.》로 되도록 하시였다. 국방위원회가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인 동시에 전반적국방관리기관으로 되였다는것은 그것이 일체 무력에 대한 지휘통솔권뿐아니라 군수공업을 비롯한 국방사업전반에 대한 조직지도권까지 행사하는 비상히 높은 법적지위를 차지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구상과 의도가 어린 새로운 국가기구체계는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새로 수정보충된 사회주의헌법의 채택과 더불어 자기의 독특한 모습을 세상에 나타냈다. 국방위원회를 중추로 하는 새로운 국가기구체계의 확립은 국가정권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실현의 위력한 무기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획기적인 계기로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세워주신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국가기구체계는 현시대의 가장 완벽한 국가기구체계로서 조선의 선군혁명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법제정사업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통찰하시고 법제정사업을 강화하는데 깊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조선에서는 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이 채택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사회주의헌법에 대한 수정보충이 진행되였다. 1992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회의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헌법이 수정보충되였으며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두번째로 사회주의헌법이 수정보충되였다. 이 가운데서 1998년에 진행된 사회주의헌법의 수정보충은 조선의 사회주의헌법발전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며 여기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와 배려가 어려있다.

조선에서 주석은 단순한 국가기구직제가 아니다. 주석이라는 직함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오시는 과정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여 조선의 당과 국가,

인민이 삼가 드린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받들어모시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주의헌법에 서문을 새롭게 설정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국가라는것을 법화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필승불패의 강국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국가건설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시였으며 사회주의국가건설의 새 력사를 창조하시였다.

조국과 인민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2003 년 8 월 3 일 649 호선거구에서 선거자들의 열렬한 신뢰와 지지속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 11 기 대의원으로 선거되시였다. 전체 선거자들이 그분을 절대적으로 지지하여 투표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2001 년과 2011 년에 로씨야련방을 방문하시여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로씨야련방방문은 조선과 로씨야 두 나라의 관계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는 사변으로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로씨야인민의 기억속에 영생하고계신다.

제 3 절에서는 세계에 위용떨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앞길에는 오늘 끝없이 밝은 전도가 펼쳐져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으로 빛내여주고계신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시고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조선혁명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여주시였다. 그

리고 독창적인 사상리론들을 수많이 제시하시여 조선인민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을 마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위업을 계승하시여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하고 사회의 안정성을 보장하고계신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사랑과 믿음의 정치, 광폭정치를 펼치시여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의 혼연일체, 불패의 일심단결을 이룩하시였다. 령도자와 천만군민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발걸음높이 힘차게 나아가는 조선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깨뜨릴 힘은 이 세상에 없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을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빛내여주고계신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존엄을 만대에 빛내이자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인민군대를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드팀없는 의지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탁월한 군사적지략과 예지로 인민군대를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척후대, 최정예의 혁명무력으로 더욱 강화하시였으며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를 새로운 단계에 올려세우시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력을 굳건히 다져주고계신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병진로선을 제시하시고 모든 분야에 구현하도록 하시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력을 비상히 강화하고계신다.

조선에서 일어나고있는 군사기술적변화들은 리해심을 가지고 대하여야 한다. 오늘 조선의 강력한 군사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존재하기 위한 담보로 되고있다. 만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강력한 군사력이 없었다면 이 나라는 의심할바 없이 리비아식의, 전망적으로는 수리아와 같이 간섭의 위협속에 들었을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의 일대 새로운 전성기

를 펼쳐나가고계신다.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계를 앞서나가는 경제강국, 문명국의 지위에까지 올려세워 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더욱 힘있게 떨치려는것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확고한 의지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런 숭고한 뜻을 안으시고 앞날에 조선인민이 행복을 누리게 될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 원대한 구상과 작전을 펼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령도하고계신다. 숭고한 애국애민의 사랑과 진취적이며 혁신적인 안목으로 최상의 목표와 과학적인 설계도를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헌신의 로고를 다 바치고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가까운 앞날에 경제강국건설과 문명국건설에서 세계를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할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혁명을 령도하신 기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기간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보루로 더욱 굳건히 다져졌으며 세계에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시다.

제 2 장에서는 쏘련에서 사회주의좌절과 그것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세계반동들은 면밀히 준비한 전략적반공격계획에 따라 지난 세기 80 년대말 90 년대초에 쏘련에 조성된 일시적난관을 리용하여 력사적복수전을 시작하였다. 결과 쏘련과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제도가 무너지고 지난날 나토의 침략적야망을 성공적으로 억제시키던 와르샤와조약기구가 해체되였으며 나토의 동쪽에로의 확대가 시작되였다.

이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였다. 그러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세계반동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걸음마

다 짓부시고 겹쌓이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갔다.

제 1 절에서는 쏘련에서 사회주의좌절의 원인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쏘련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데는 주객관적인 원인들이 있었으나 그것으로 하여 반드시 붕괴되여야 한다는 불가피성은 없었다. 사회주의나라들이 발전도상에서 부닥쳤던 복잡한 문제들은 자본주의적경제방법들을 도입하지 않고 사회주의의 테두리내에서 극복할수 있었으며 또 그렇게 해야 하였다.

쏘련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 원인은 주객관적성격을 띤 두가지부류로 갈라볼수 있다.

무엇보다도 내적으로 존재하고있던 주관적원인들부터 분석해보아야 한다.

당이 대중과 리탈되여 국가기관과 전체 사회에서 집권당인 쏘련공산당이 차지하는 권위와 영향력을 급속히 떨어뜨리게 한데 대하여 지적해야 한다. 쏘련공산당내부가 분렬되고 당내정보자료를 은페시킴으로 하여 일반공산당원들속에서 반공계층에 대처하지 못하고 방향을 잃는 현상이 나타났다. 건설적인 대화를 진행하고 정치적영향력에서 면제시키는 등 이른바 《민주주의자》들과 각종 정치투쟁을 벌릴 대신에 이른바 《공개성》에 빙자하여 그들과 타협하는 길로 나갔다.

또한 사회주의에 있어서 외적인 성격을 가지는 주관적원인들이 다른 원인을 이룬다. 반사회주의세력의 활동도 여기에 포함시켜야 한다. 여기에서 이른바 《야당세력》, 《반체제파》, 본질에 있어서는 친부르죠아분자들과 《부정자본가》들의 활동에 대하여 지적해야 한다. 반사회주의세력을 재정적으로, 조직적 및 정보적으로 돕고있는 제국주의자들의 적대행위는 커다란 작용을 하였다. 이른바 《영향전파자》들의 활동도 여기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그들은 제때에 적발되지 않고 자기의 파괴활동을 로골적으로, 은페적으로 벌릴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되였다. 비프로레타리아계층들에 의하여 당과 국가가 어지럽혀졌는데 특히 사회주의를 반대하

는 분자들을 골라내는 사회계급적려과기능이 실제로 없어진 엠. 에쓰. 고르바쵸브집권시기에 명백히 나타났다. 결과 당내에는 자기의 프로레타리아적과거와 인민에 대한 책임감을 버린 지식인들이 집권당의 많은 지도적직책을 차지하는 사태가 조성되였다.

다음으로 내적 및 외적인 객관적원인에 대하여 분석해보아야 한다.

오랜 기간에 걸쳐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양하지 못하게 하고 쏘련에 군비경쟁을 강요한 적대적인 제국주의의 포위환을 들수있다. 국제무역부문에 조성된 대외무역관계는 수출리익금을 낮추게 한 불평등한것으로서 국가예산의 수입을 낮추고 나아가서는 인민들의 생활형편을 어렵게 만들었다. 외적요인의 작용인 원유가격눌음, 새 기술과 장비들의 대외납입에 대한 의존성은 사회주의국가의 경제상태을 취약하게 만들었으며 결과 근로자들의 물질생활에 영향을 주었다.

쏘련에서의 사회주의발전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일련의 내적원인들도 객관적원인에 넣어야 한다. 중요원인들속에서 사회주의국가내의 이른바 《부르죠아국가》존재를 분류해보아야 한다. 즉 프로레타리아국가내에 부르죠아규범과 관계를 반영하고 보호하는 요소들이 보존되여있다는것이다.

쏘련에서의 사회주의제도의 붕괴의 원인은 교조주의와 관료주의, 즉 리론과 정치가 변하는 력사적실천의 요구와 광범한 인민대중의 자주성실현의 과업과 동떨어져있은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사회주의의 붕괴의 원인을 분석하시면서 방대한 량의 로작들을 집필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혁명적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수 없다》,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비롯한 수많은 로작들에서 사회주의의 붕괴의 원인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사회주의의 발전에 난관을 조성하는 주객관적인 원인들은 사회주의

가 자기의 짧은 력사적존재시기에 논 세계사적역할을 죄다 지워버리지는 못한다.

위대한 10월혁명과 쏘련에서의 혁혁한 사회주의건설성과, 20세기의 가장 강한 제국주의인 파쑈도이췰란드와의 결사전에서의 쏘련의 승리의 영향밑에 세계에서 일어난 변혁들과 일본군국주의의 파멸은 지워버릴수 없는것들이다. 식민지체계는 붕괴되였으며 수십개의 신생독립국가들이 출현하였다.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사회경제 및 정치체계로서의 사회주의도 고수되였다.

제 2 절에서는 쏘련에서 사회주의좌절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일반적으로 놓고 볼 때 조선의 사회주의건설과정에는 일련의 부정적요인들이 작용하였다.

그것은 지리적환경을 놓고 말할수 있다. 조선은 국토의 80%가 산인것으로 하여 경작지면적을 늘일수 없다. 인구밀도가 높으며 령토도 크지 않다.

또한 나라와 민족이 둘로 갈라져있다. 이것은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제 2 차세계대전의 부당한 유물이라고 할수 있다. 분렬의 가슴아픈 현실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 반세기이상 지속됨으로써 민족의 통일적발전과 번영에는 커다란 장애가 조성되게 되였다.

현실적으로 계속되고있는 북과 남사이의 대립은 조선인민의 생활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고있다. 모든 각양각색의 모순과 그 해결의 첨예성과 군사적성격은 군사분야의 역할을 절대화하게 만들고 동시에 경제의 인민생활부문의 효과성을 낮추고있다. 조선반도에서는 침략과 전쟁의 불구름이 항시적으로 떠돌고있다.

조선은 제국주의와의 직접적인 대결속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진행해왔다. 이 대립은 장기성을 띠였으며 때로는 직접적인 무장투쟁형식들도 띠였다.

나라의 자주권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는 사업은 국방과학과 국방공업건설에 많은 자금을 투자할것을 요구하였으므로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고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발양시킬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게 한다.

현대전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전투기술기재는 적은 수의 나라들에서만이 생산하고있다. 스웨리예와 스위스까지도 자체의 땅크와 추격기들의 제작 및 생산을 포기하였다. 그러나 조선은 조선전쟁과 기타 다른 전쟁들의 심각한 교훈으로부터 출발하여 전투기술기재구입을 다른 나라들에 의존하는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 나라에는 거의 모든 종류의 무기를 자기 나라에서 제작 및 생산할수 있는 체계가 수립되여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조선의 사회주의건설에 영향을 미치였다.

로씨야의 학자들은 쏘련에서의 사회주의좌절과 관련하여 조선이 1990년대에 경제분야에서 손실을 입었다고 하였다. 1995년부터 조선은 3년동안 고난의 행군을 하였다. 이것은 문자그대로 그때의 엄혹한 환경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지난 시기 조선은 여러 차례에 걸쳐 경제발전계획을 5년, 7년기간에 수행하군 하였다. 물론 계획수행기간을 연장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어쨌든간에 눈에 띄우게 경제가 장성하였다. 제3차 7개년계획(1987-1993)을 수행하는 과정에 난관이 조성되였다. 조선은 시종일관 자립적민족경제를 발전시키는 로선을 견지하여왔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중국과 쏘련과 동유럽나라들에서 원유와 콕스를 비롯한 필요한 원료와 재료들을 수입하였다. 조선에는 원유와 콕스, 고무와 같은 주요자원이 없다. 조선은 사회주의시장이 무너지기전까지 국가들사이의 대외무역계약에 따라 원유와 콕스를 우호적인 가격으로 수입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시장의 붕괴로 1990년 11월부터는 모든 대외무역에서 US$로만 결재하여야 하였다. 자본주의시장으로 대외경제관계방향을 바꾸는것은 조선의 경제발전에서 특별한 의의를 가지였다. 대외무역제일

주의는 자본주의시장에로의 진출을 의미하였다.

조선은 쏘련시기 체결되였던 조약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1990년대 초 로씨야에서 현대사회민주주의자들이 집권한것으로 하여 이 조약실행은 중지되였다. 로씨야는 쏘련시기 조선과의 상대적인 평등을 마비시켰다. 모든 합의내용을 배격하여 조선의 발전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조선의 발전을 멈춰세우지는 못하였다.

유감스럽게도 오늘 조선을 방문하면서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것은 때때로 이곳에서 로씨야련방공산당이 아니라 다른 로씨야정당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것이다. 실례로 평양의 중심부에 서있는 웅장한 주체사상탑에는 쥐리놉스끼의 당이 보내온 기념돌이 있다. 그곳에는 원래 로씨야련방공산당을 대표하는것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도 공산주의자들이고 조선사람들도 공산주의자들이기때문이다. 국제친선전람관에는 많은 정당들에서 보내온 축전들이 전시되여있으나 게. 아. 쥬가노브의 서한이 없는것이 유감을 자아낸다.

1994년 7월 8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서거하시였다. 이날 깊은 밤 나라의 각 지방들에서는 갑자기 벼락이 치고 소낙비가 쏟아졌다.
조선인민의 충격과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그들은 이러한 자연현상들도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와 련결시켜보았다. 방송으로 특별보도가 나오고 전세계는 깊은 애도에 잠겨있었다.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조선은 난관을 극복하는데 달라붙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제국주의자들과 세계의 반동들은 조선을 반대하는 적대행위들을 각방으로 감행하였다. 특히 조선을 약화시키려고 정치군사정세를 긴장시키고 경제적봉쇄를 강구하였으며 군사적압력을 가하였다.

화는 쌍으로 온다는 말이 있듯이 몇년동안 계속된 자연재해로 하여 나라에는 형언할수 없는 난관이 조성되였다.

쏘련과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일시적으로 좌절된것으로 하여

조선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난관을 조성하였지만 전진을 가로막을수는 없었다. 조선은 1990 년대에 나라의 경제분야에 조성되였던 난국을 철저히 극복해나갔다. 가혹한 경제봉쇄, 군사분계선일대에서 벌어지는 항시적인 군사적도발행위에도 불구하고 또 쏘련과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일시적으로 좌절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끄떡없으며 계속 발전하고있다.

오늘 조선은 세계화책동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전면적으로 맞서고있는 세계사회주의의 불패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하고있다. 조선은 1992 년 4 월에 벌써 세계사회주의재건운동의 기치를 들었으며 세계 각국의 200 여개의 진보적당들이 서명한 평양선언을 채택하였다. 조선은 수십년동안 감행되여왔고 현재까지도 계속되고있는 적대세력의 끊임없는 위협과 도발책동에 훌륭히 맞서 싸우고있다. 그 비결은 조선로동당의 선견지명과 현명한 령도에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은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성과적으로 짓부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성된 정세발전을 예측하시고 인민군대를 주력군으로 하여 광범한 대중을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로 적극 불러일으켰다. 조선에서 인민군대의 활동은 로동계급과 농민의 리익을 대변하는 사회의 도덕적기초에 있으며 이것으로 하여 당과 군대와 인민은 하나로 되고있는것이다. 결국 조선은 조성된 준엄한 환경속에서 객관적인 요인이 성숙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주체적인 요인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갔다.

제 3 장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특성을 규정하는 사상적기초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제 1 절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특성을 규정하는 사상적기초로서 주체사상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1)에서는 주체사상의 창시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시였을 때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는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투쟁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었다.

세계무대에서는 처음으로 승리한 사회주의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로동계급의 혁명투쟁과 식민지, 반식민지나라 인민들의 해방투쟁이 급격히 앙양되였다. 제국주의자들은 인민대중의 혁명적진출을 가로막으며 저들이 겪고있던 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에서 벗어나보려고 인민들에 대한 략탈과 폭압을 더욱 강화하였다. 많은 나라들에서 혁명과 반혁명사이의 모순과 대립이 격화되였으며 오래동안 자주권을 유린당해온 인민대중이 계급적, 민족적해방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 혁명운동이 세계적범위에서 폭넓고 다양하게 발전하는 새시대가 다가왔던것이다.

새로운 력사적조건에서 혁명을 전진시키기 위하여서는 매개 나라 로동계급과 인민들이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자체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야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20세기 30년대 당시의 세계발전추세를 고려하여 조선인민의 민족해방과업의 길을 옳게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투쟁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대중에게 의거하여 투쟁하는 참다운 혁명의 길을 걸으시였으며 혁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교양하고 조직동원하여야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다는 진리를 밝히시였다. 이것이 주체사상의 출발점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혁명은 그 누구의 승인이나 지시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자기의 신념에 의하여 자기가 책임지고 하여야 하며 혁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진리를 밝히시였다. 이것이 주체사상의 다른 하나의 출발점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는 투쟁과정에 주체사상의 진리를 발견하시고 마침내 1930 년 6 월 30 일부터 7

월 2일까지 진행된 카륜회의에서 주체사상의 창시를 선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에서 《조선혁명의 진로》라는 제목으로 보고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보고에서 혁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고 혁명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인민을 불러일으켜야 하며 조선혁명의 주인은 조선인민자신이며 조선혁명은 어떤 경우에도 조선인민자체의 힘으로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진행하여야 한다는 사상을 천명하시였다.

카륜회의는 위대한 주체사상과 주체의 혁명리론의 창시를 선포한 회의로 조선의 현대력사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발전사에 기록되였다.

여기에서 3가지 특성을 구분할수 있다.

첫번째 특성은 사람은 자주성을 가지고있다는것이다.

사람의 자주성은 각이한 수준의 사회조건에서 실현된다. 인민대중의 자주성, 민족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매 인간의 자주성실현의 의미가 있다. 단결된 인민은 만능의 힘을 가지며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자주성을 실현할수 있다.

두번째 특성은 력사과정의 최고목표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것인것만큼 인민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된다는것이다.

사회주의는 인민을 위하여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인민자체가 세우는것이다. 사회주의는 인민의 리익과 숙망에 따라 세우고 인민은 민족속에 존재하기때문에 사회주의는 민족성을 가지고 인민의 풍습과 전통을 고려하고 모든 력사와 문화적재보에 최대로 의거하여야 하며 매개 나라 인민에게 친근하고 혈연적인 위업으로 되여야 한다. 그러므로 도이췰란드에서는 도이췰란드식 사회주의를 건설하는것과 마찬가지로 조선에서는 바로 조선식 사회주의가 건설되여야 한다.

세번째 특성은 맑스-레닌주의창시자들이 밝힌 과학적, 프로레타리아 사회주의의 원칙들이 추상적인 구호로 되지 않으려면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새로운 조건들, 주체의 원칙들과 항시적으로 맞추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각이한 나라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맑스주의고전이 발전할수 있을뿐아니라 발전하여야 한다는 사상도 주체사상이 창시되기 이전에 레닌에 의하여 제시되였다. 실례로 1899 년에 《우리의 강령》이라는 글에서 레닌은 《우리는 맑스의 리론을 그 무슨 완성되고 신성한것으로 보지 않는다. 우리는 반대로 이 강령이 사회주의자들이 생활에서 뒤떨어지고싶지 않다면 각방면으로 더욱 발전시켜야 할 그러한 과학의 초석만을 쌓은것이라고 확신하고있다. 우리는 로씨야의 사회주의자들에 있어서 특히 맑스의 리론을 자주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이 리론이 특히 영국과 프랑스가 다르고 프랑스와 도이췰란드가 다르며 도이췰란드와 로씨야에 다르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지도적원리들만을 주기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조선의 리론은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자주적으로 제시되여야 한다는 사상이 흘러나오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자주사상으로서 혁명과 건설에서 민족적토양에 기초하고있다.

(2)에서는 주체사상의 기본내용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주체사상은 인류철학사상사에서 처음으로 사람을 철학적사유의 중심에 놓으며 사람과의 관계속에서 모든 철학적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사람중심의 철학사상이다.

《주체》라는 술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독자성 혹은 자주성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30 년에 밝히신 《주체》라는 술어를 로어문자그대로 번역하면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는것이다. 조로사전들에서는 이 술어에 대하여 《주요부분》과 《독자성》이라고 해석을 주었다. 《주체》는 사람이 자기와 주위세계의 주인으로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지난날 인류철학사에는 각양각색의 철학사상들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사람을 중심에 놓고 전개된 철학사상은 없었다. 주체사상이 나오기 이전시기에는 철학류파들이 수천년에 걸쳐 물질로부터 의식이 발생하는

가, 의식으로부터 물질이 나오는가 하는 문제와 세계는 변화발전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놓고 끊임없는 론쟁을 벌려왔다. 이로부터 지난날 철학의 발전력사를 유물론과 관념론, 변증법과 형이상학간의 투쟁의 력사라고 한다.

맑스-레닌주의는 세계는 물질로 통일되여있고 그자체의 법칙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발전한다는 유물변증법의 원리를 밝히고 그것을 사회력사연구에 적용하여 사회력사에도 자연에서와 마찬가지로 물질세계의 일반적합법칙성이 작용한다는것을 해명하였다. 수천년동안 끊임없는 론쟁속에서도 해답을 찾지 못하던 종래의 철학적문제를 과학적으로 종결지은데 맑스-레닌주의의 력사적공적이 있다.

맑스-레닌주의는 관념론과 형이상학을 타파하고 처음으로 세계를 과학적으로 설명할수 있는 변증법적 및 력사적유물론을 확립하였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물질중심의 사상이였다. 물론 맑스-레닌주의는 유물변증법적방법에 의거하고 그를 구현하였기때문에 자본주의적착취의 비밀을 밝히고 과학적사회주의학설을 전개할수 있었다. 하지만 맑스-레닌주의는 물질과 의식의 관계문제에 초점을 두고 론의하던 종래철학의 테두리를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여기에 맑스-레닌주의가 광범한 인민대중의 혁명사상으로 되지 못한 주되는 리유가 있다.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의 사상정신적무기로서의 혁명사상은 마땅히 혁명투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인민대중의 리익의 견지에서, 인민대중의 힘을 최대한 발동시키기 위한 리론을 전개해나갈수 있는 사상으로 되여야 한다.

주체사상은 무엇보다도 사람중심의 철학적원리를 밝혀주고있다.

맑스-레닌주의철학을 연구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견해가 생소하고 론쟁대상이 될만한것으로 보일수 있다. 쏘련의 철학가들중(더우기 쏘련의 과거를 부인하는 쏘련철학가들은) 《포이에르바흐에 관한 테제》에서 밝힌 발전의 원천에 대한 문제, 적극적인 시작에 대한 문제를 유물

론자들이 말아볼 때가 되였다는것과 철학이 세계에 대한 해석뿐만아니라 세계의 개편문제에 종사하여야 한다는 문제를 념두에 두고있다. 그러나 세계와 사람과의 실천적관계에 대한 고유한 문제들은 일반철학적개념에서는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였으며 오직 주체사상에서만 찾아볼수 있다.

주체사상에서는 사람을 중심에 놓는다, 즉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다. 주체사상은 사람을 세계의 단순한 한 부분이 아니라 그 주인, 지배자로 내세우고 사람과의 관계속에서 세계관을 밝혀주는 사람중심의 철학사상이다. 주체사상의 진수는 바로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것이다.

사람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밝혀주고있는 이 정의는 사람자체가 가지고있는 본질적특성에 대한 철학적해명에 기초하고있는 새로운 정의이다. 주체사상은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해명하는것을 중요한 철학적과제로 내세우고 사람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라는것을 독창적으로 밝혔다.

사람의 본질적특성에 대한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해명에 기초하여 사람을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내세우는 주체사상은 모든 사고와 활동에서 사람의 리익과 역할을 중시할데 대한 관점과 립장을 확립하였다.

주체사상은 다음으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력사원리를 독창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주체사상은 사회력사적운동에는 자연의 운동에서와는 달리 그것을 목적의식적으로 일으키고 떠밀고나가는 주체가 있다는것을 천명하고 력사의 주체는 인민대중이라는것을 밝혔다.

로씨야련방공산당의 적극적인 지지밑에 모스크바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92 년 4 월 15 일 탄생 80 돐경축연회에서 하신 연설 《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한 담보》가 단행본으로 출판되였다. 이 연설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의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인민대중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인민대중이 력사의 참다운 창조자라는 사상은 150 년전에 맑스에 의

하여 표명되였다. 하지만 19 세기에 그것은 과거와 현재의 력사적경험과 같은것에 의하여 과학적으로 론증된것이지만 혁명적개조의 실천과 결부되여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것으로 하여 결가설처럼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서술되여있었다. 결국 프로레타리아혁명에 관한 맑스주의학설에서 이 사상은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였으며 차지할수 없었다.

레닌은 그가 쓴 저서들에 이러한 견해를 내놓을수 있는 기초적인 대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혁명의 주체와 관련한 전일적인 학설을 내놓지 못하였다. 인민의 힘을 단결시키고 력량관계변화를 능숙하게 조직한 레닌의 전우이며 그의 위업의 계승자인 스딸린도 역시 혁명과 건설의 주체에 관한 전일적이며 과학적인 견해를 내놓지 못하였다.

이것은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지게 되였다. 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지만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그의 지위와 역할이 같은것이 아니다. 인민대중은 근로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며 그들의 힘과 지혜는 무궁무진하다. 인민대중은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지혜롭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이 주인으로서의 자기의 지위를 인식하고 떨쳐나서면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임의의 어려운 문제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은 언제나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투쟁한다. 인민을 등진 한줌도 안되는 반민족적인 반혁명세력을 제외한 압도적인 다수의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체를 이룬다.

주체사상은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본질적특성으로 하여 사회력사적운동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운동으로 된다는것을 명시하였다.

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력사적운동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운동이라는 사회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인민대중을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보고 대할데 대한 새로운 관점과 립장이 흘러나온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난날 무지몽매하고 력사발전에 아무런 기여도

할수 없는 존재로, 착취와 억압, 천대와 멸시를 받아도 마땅한것으로 간주되여오던 인민대중의 지위는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게 되였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이 세상의 모든것은 인민대중을 위해 복무하는 한에서만 가치를 가질수 있다는것이 과학적으로 해명되게 되였다.

주체사상은 다음으로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원칙을 밝혀주고있다.

인민대중의 운명은 혁명과 건설을 통해서만 개척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하자면 그 수행을 위한 투쟁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 투쟁의 원칙이 없는 사상은 아무리 독창적인 원리들을 밝힌것이라고 하여도 혁명의 지도사상으로 될수 없다.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에는 자주적립장을 견지하고 창조적방법을 구현하며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기 위한 원칙들이 담겨져있다.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당과 국가가 인민들의 자주적권리를 철저히 옹호하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창조적능력에 의거하며 인민대중의 높은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켜 혁명과 건설전반을 밀고나가는데서 확고히 견지해야 할 원칙이다.

주체사상은 인류사상사에서 새롭게 발견된 사상이다. 인민대중이 력사상 처음으로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인류력사의 새 시대, 로동계급의 혁명운동이 멀리 전진하여 전세계적범위에서 폭넓고 깊이있게 벌어지는 새로운 혁명실천은 혁명의 새로운 지도사상을 요구하였다. 주체사상은 혁명운동발전의 이러한 새로운 요구에 해답을 주었다.

사상은 사회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논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고립된 사상은 사회에 대한 전체적인 표상까지는 주지 못한다. 혁명실천에 구현되지 못하는 사상은 시기상조인것으로 되거나 허황한것으로 되며 이러한 사상은 시정되여야 한다. 전체적이며 호상련관된 사상의 총체, 즉 사회의 당면한 현실을 반영할뿐만아니라 그 발전전망을 제시하고 앞날의 변화의 목적을 알고 행동지침으로 될수 있는 사상이 필요하다. 대중을

틀어잡는 사상은 커다란 힘을 발휘하게 된다. 사상이 형성되고 발전하는데는 민족적인 과정, 구체적인 력사적사변들이 큰 역할을 한다.

주체사상은 조선의 지도사상이다. 주체사상이 조선의 지도사상이라는것은 조선의 정치실천에서 검증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된후 지금까지의 모든 승리와 성과들은 주체사상을 구현하는 과정에 이룩된것들이다. 조선에서는 주체사상이 현실로 꽃펴나고있다. 1972 년 헌법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활동에서 주체사상, 즉 《사람중심의 세계관, 인민대중의 자주성실현을 위한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는 사회주의자주국가이라고 되여있다.

제 2 절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특성을 규정하는 사상적기초로서 선군사상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1)에서는 선군사상의 창시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20 세기에 들어서면서 자기 나라 인민대중을 억압착취하고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을 지배하고 예속시키기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파쑈적폭압과 침략책동은 더욱 로골화되였다.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이 처한 정치경제적위기에서 벗어나보려고 자국내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착취와 략탈, 폭압책동을 더욱 강화하였다. 하루아침에 1 000 여명의 희생자와 2 000 여명의 부상자를 냄으로써 력사에 《피의 일요일》로 기록된 로씨야에서의 1905 년 《1 월 9 일사변》은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무자비한 폭압정책의 일단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 대한 침략과 략탈을 생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자국내에서 저들의 정치경제적위기가 심화되자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출로를 해외침략에서 찾고 공공연하고 로골적인 침략전쟁에 더욱 광분하였는데 대표적실례로 들수 있는것이 바로 제 1 차세계대전이다.

조선에서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민족해방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

도 일제의 반혁명적폭력을 때려부실수 있는 길을 밝혀주는 옳바른 혁명리론이 있어야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0년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진행된 카륜회의에서 하신 보고 《조선혁명의 진로》에서 주체사상의 근본원리와 원칙을 제시하신데 기초하여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는것을 반일민족해방투쟁의 기본로선으로, 조선혁명가들의 첫째가는 과업으로 제시하시였다.

카륜회의에서 제시된 무장투쟁로선에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에서 무엇보다 총대를 중시하고 그것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총대중시의 독창적인 혁명원리가 담겨져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카륜회의에서 제시하신 무장투쟁로선은 주체사상의 원리와 요구를 철저히 구현한 혁명로선이였다. 카륜회의에서 제시된 무장투쟁로선은 주체사상의 근본원리, 근본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다름아닌 총대를 혁명의 제일무기로 튼튼히 틀어쥐여야 하며 혁명의 주인인 인민대중을 무장시키고 그 위력으로 혁명을 전진시켜나가야 한다는 진리를 밝혀주고있다. 그러므로 선군사상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길을 총대를 중심에 놓고 밝혀주는 혁명리론으로 된다.

물론 무장투쟁로선은 조선혁명에서 처음으로 제기된것도 아니고 조선혁명에만 있었던것도 아니다. 레닌은 1917년 2월 부르죠아민주주의혁명후 반혁명적폭력이 횡행하고 혁명의 평화적발전의 가능성이 없어지자 1917년 7월 26일부터 8월 3일 뻬뜨로그라드에서 진행된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혁명적폭력으로 부르죠아정권을 타도하고 프로레타리아독재를 확립할데 대한 무장폭동방침을 채택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무장투쟁로선은 모두 정권전취에만 그 목적을 둔 로선들이였지 총대

를 앞세워 혁명투쟁전반을 이끌어나가기 위한 로선 즉 선군에 관한 사상과 로선은 아니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무장투쟁로선은 총대를 기본으로 틀어쥐고 그에 의거하여 당시 조선혁명의 당면과업이였던 민족해방혁명을 이룩하고 혁명운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갈데 대한 혁명로선, 선군혁명로선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으신 두자루의 권총과 《ㅌ.ㄷ》의 강령은 자주시대와 조선혁명의 현실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선군사상의 탄생을 가져온 시원으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952년 7월 10일에 아버님으로부터 권총을 유산으로 넘겨받으시였다. 이 날은 김형직선생님의 탄생일이였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서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국가의 최고군사지도자로서 특출한 역할을 하실수 있은것과 함께 국방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실수 있은것을 알수 있다.

(2)에서는 선군사상의 기본내용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선군사상은 한마디로 말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군사를 중시하고 앞세우며 혁명군대를 핵심력량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전반을 밀고나갈데 대한 사상이다.

인류사상사에는 근로인민대중의 사회적해방을 실현하는것을 자기의 목적으로 내세운 사상조류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그 어떤 사상도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길을 총대, 혁명군대를 기본으로 하여 밝히지 못하였다. 근로인민대중의 사회적해방을 지향한 첫 사회주의학설이였던 공상적사회주의리론은 피착취근로대중을 단순한 동정의 대상으로만 보고 자본주의사회악을 폭로하였으며 사람들에 대한 계몽과 착취계급의 이른바 《선의》에 호소하는 개량의 방법으로 사회적평등을 실현해보려고 하였다.

맑스-레닌주의는 자본주의사회를 전복할수 있는 가장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계급, 주력군은 로동계급이며 로동계급의 계급투쟁에 의하여서만 사회주의를 실현할수 있다는것을 밝힘으로써 사회주의를 공상으로부터 과학으로 전환시켰다. 맑스-레닌주의는 자본주의사회는 개량의 방법으로써는 뒤집어엎을수 없으며 오직 로동계급의 혁명적폭력으로써만 전복하고 사회에 대한 로동계급의 정치적지배, 프로레타리아독재를 무기로 하여서만 사회주의를 건설할수 있다는것을 밝히였다. 사회에 대한 로동계급의 정치적지배, 프로레타리아독재를 무기로 하여 착취계급의 사적소유를 청산하고 전복된 착취계급의 반항을 진압하며 경제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실현할데 대한 프로레타리아독재리론은 맑스-레닌주의의 핵을 이루는 사상이다. 맑스-레닌주의가 밝힌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건설리론에서는 선군을 제기할수가 없었다.

선군사상은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의 전과정에서 언제나 군사를 그 무엇보다 중시하고 그 강화에 최우선적인 힘을 넣으며 로동계급보다 혁명군대를 앞세우고 그의 핵심적이며 주도적인 역할에 의거할데 대한 혁명사상이다. 선군혁명사상의 모든 원리와 원칙, 내용들에는 다 군사선행, 선군후로의 사상이 관통되여있다.

선군혁명사상은 혁명군대를 핵심력량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전반을 밀고나갈데 대한 사상이다. 각이한 계급과 계층, 사회적집단으로 이루어지는 혁명력량가운데서 혁명군대만큼 위력한 집단은 없으며 혁명군대를 핵심으로 할 때 혁명의 주체의 위력을 최대한으로 강화하고 높이 발양시켜나갈수 있다는것을 독창적으로 밝혀주는 혁명사상이 바로 선군사상이다.

혁명의 주체를 이루는 여러 계급과 계층, 사회적집단가운데서 가장 우월하고 힘있는 집단은 바로 총대를 잡은 혁명군대이다. 지금까지 군대라고 하면 대체로 군사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무장한 집단이라고 보아왔다. 이에 대해서는 맑스-레닌주의의 혁명리론도 마찬가지였다. 원래 군대는 계급사회의 출현과 함께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지배하기 위한 폭력수단으로, 전쟁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상비적인 무장집단으로 조직되였

으며 군사적활동을 자기의 고유한 사명과 임무로 하고있다. 하지만 혁명군대는 싸움만 하는 집단, 단순한 군사적집단이 아니다.

혁명군대는 총을 잡고 반제군사전선을 지켜선 무장력일뿐아니라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여 혁명과 건설전반을 밀고나가는데서 핵심으로 되는 혁명력량, 혁명집단이다. 혁명군대를 핵심력량으로 하게 될 때 혁명의 주체는 혁명의 제일선에서 결사의 투쟁을 벌려나가는 혁명군대의 정신과 투쟁기풍으로 일색화된 불패의 전투대오로, 그 어떤 힘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강위력한 혁명력량으로 장성강화되게 된다.

물론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서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계급인 로동계급을 내세우고 그 역할을 강화해나가는 길을 택할수도 있다. 이것은 지난 시기의 혁명투쟁에서 어길수 없는 하나의 공식처럼 굳어진것이였다.

그러나 혁명군대의 본성과 무장대오로서의 그 특성, 혁명실천의 경험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보면 혁명군대만큼 위력한 혁명력량은 더는 없다. 이로부터 혁명군대를 핵심으로, 주력으로 할 때 혁명의 주체의 위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그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여나갈수 있다. 이것은 혁명군대를 핵심력량으로 삼는데 혁명의 주체강화의 새로운 길, 가장 옳바른 길이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한가지 명백히 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선군사상이 주체사상을 뿌리로 하고있으며 주체사상에서 자기의 고유한 위치를 차지한다는것이다.

선군사상이 주체사상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한마디로 말하여 그것이 혁명승리를 위한 관건적문제들에 해답을 주는 혁명리론이라는것이다. 선군사상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과학적인 길을 밝혀준 주체사상과 별개의 사상이 아니다. 선군사상은 주체사상의 구성체계에 포섭되고 그 실현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혁명리론이다.

혁명리론이 없는 혁명실천이란 있을수 없다는 레닌주의가 밝힌 원리는 누구나 다 알고있는 사실이다. 혁명리론은 과학적으로 론증되고 력사

적실천에 의하여 증명된 원칙들을 가지고 자기의 발전을 통하여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보장하고있다.

선군이라는 말은 주체라는 말과 함께 조선에서 태여나 전인류적인것으로 공감하고 파급되고있는 오늘의 시대어이다.

선군사상은 조선혁명의 지도적지침이다. 선군혁명, 선군정치, 선군조선의 위대한 력사를 탄생시킨 독창적인 선군은 조선에 있어서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변함없는 삶과 투쟁의 영원한 주제이다. 선군은 인민들속에서 자주이고 애국이고 존엄이며 승리라는 개념으로 통칭되고있다.

선군은 조선혁명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다. 선군의 기치와 더불어 조선인민은 력사에 류례없는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고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하였으며 조선은 온 세상에 자기의 존엄과 위상을 뚜렷이 과시하였다. 거의 80 년에 이르는 어렵고 복잡한 투쟁과 창조의 력사적경험은 바로 선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생활력과 불패성의 원천이 있다는 진리를 전면적으로 확증해주었다.

제 4 장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라는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제 1 절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사회주의국가라는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국가이다.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이라는것은 그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모든것을 자기의 리익에 맞게 자신의 힘으로 처리해나간다는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무엇보다도 인민대중을 정치의 주인으로 내세우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인민대중이 국가정권의 주인으로 되여 모든 사회생활을 진행해나가고있다. 이 나라에서 국가정치는 철저히 정치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진행된다. 국가는 인민대

중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모든 정책을 세우고 인민대중의 리익에 맞게 그것을 집행해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인민대중이 국가정치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있을뿐아니라 당조직을 비롯한 정치조직들을 통한 정치생활에도 주인답게 참가하고있다.

당은 인민대중의 핵심부대이다. 혁명적당은 혁명이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대를 이어가며 인민대중을 령도하여야 할 사명을 지니고있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조선혁명을 계승하고 승리에로 이끌어야 할 사명을 지니고있다. 오직 그렇게 되여야 조선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담보할수 있다.

흔히 사회의 정치체계에는 정당과 국가를 제외하고 사회단체, 로동집단 등 다른 요소들도 포함되는데 그것들도 정치적기능을 수행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사회단체, 근로집단들이 대중을 정치적으로 교양하고 그들의 정치적적극성을 높이며 국가와 사회의 사업들을 조종하는 사업에서 노는 역할이 높아진다. 이와 함께 당과 국가를 대중과 련결시켜주는 수단으로서, 광범한 근로대중에 대한 당과 국가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보급자로서 이것들이 가지는 의의도 높아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다음과 같은 사회단체들이 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조선직업총동맹,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등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정치조직들의 활동은 철저히 인민대중의 의사와 념원,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는데 복종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다른 정당, 사회단체들도 존재하고 활동한다. 실례로 집권당인 조선로동당외에 조선사회민주당과 천도교청우당이 있다. 두당은 다같이 조선로동당의 령도적역할을 인정하고 그의 정치를 지지하며그와 적극 협력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다음으로 인민대중을 생산수단을 비롯한 모든 사회적재부와 경제관리의 주인으로 내세우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인민대중이 생산수단의 주인으로서 경제를 자기 리익에 맞게 발전시키고 관리운영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가 창조한 물질적부를 향유하면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고있다.

제 2 절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국가라는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것이 사회의 주인인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이다.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한다는것은 당과 국가의 모든 활동이 인민대중에게 진정한 자유와 권리,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여주는데 복종된다는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무엇보다도 모든 사회성원들이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국가사회생활에 자유롭게 참가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하여주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당과 국가의 모든 활동이 인민대중에게 진정한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여주는데 복종되고있다. 조선민주주의공화국에서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지향과 요구, 의사를 반영하여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인민대중의 리익에 맞게 그것을 집행해나가는것을 철칙으로 삼고있다. 또한 국가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국가관리와 사회정치생활에 자유롭게 참가하여 정치조직생활을 할수 있는 법률적, 사회적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다음으로 자기의 활동을 인민대중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여주는데 복종시키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국가활동에 철저히 구현하고있으며 어떤 경우에도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거나 인민우에 군림하여 세도를 쓰고 관료주의를 부리는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인민들이 먹고 입고 쓰고 사는데 필요한 조건들을 책임지고 보장해주고있다. 모든 근로자들이 안정된 일자리에서 자기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사회와 자기자신을 위한 창조적로동에 참가할수 있도록 일할 권리와 로동조건을 마련해주며 그들이 일한 결과에 따라 분배를 정확히 받을수 있도록 정책을 세우고 집행해나간다. 그리고 사회보장제, 사회보험제, 정휴양제 등 국가적 및 사회적부담에 의한 인민적시책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국가의 보살핌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있다.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8 시간로동제가 실시되고있다. 아이들이 3 명이상인 어머니들은 고려하여 하루 6 시간 로동한다. 남성들은 60 살에, 녀성들은 55 살에 이르면 년로보장으로 넘어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세금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선에서는 남의 등을 쳐먹고 사는것을 독풀처럼 무자비하게 뿌리뽑고있다. 로동, 오직 로동만이 제일이다.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조선에서는 특히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 혁명의 계승자인 청년들을 위해 백만자루, 천만자루품도 아끼지 않고있다.

조선의 남다른 긍지는 혁명의 전도와 민족의 장래를 떠메고나갈 청년대군이 준비되여있는것이다. 조선청년들이 당을 옹위하고 당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나가는것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위업,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하기 위한 근본담보로 된다.

조선의 모든 청년들은 조선로동당밖에 모른다는 투철한 관점을 가지고 당만을 믿고 따르며 당에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오로지 당이 가리키는 길로만 나아가며 당과 일심동체가 되고있다. 조선의 청년대오는 조선로동당을 앞장에서 옹위하며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당의 사상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당의 전투적인 전위부대로 되고있다. 조선청년들은 주체의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 사회주의의 견결한 옹호자, 힘있는 건설자, 믿음직한 보위자로 되고있다. 조선로동당과 조선

인민의 혁명위업은 사회주의위업이며 주체의 사회주의는 조선혁명의 위대한 전취물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청년문제가 완전히 빛나게 해결되였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특성이 강한 인민적성격을 띤다는것을 알수 있다.

제 3 절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인민대중의 단결된 힘에 의하여 발전하는 사회주의국가라는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1972 년 12 월 27 일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 의하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사회주의적생산관계,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고 되여있다.

광범한 인민대중의 단결된 힘에 의하여 발전하는것은 조선혁명의 전통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강력한 주체를 마련하고 광범한 혁명력량을 단결시키기 위하여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으로부터 시작하시여 장구하고 어려운 길을 걸어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가 패망하고 조선이 독립된 후 모든 민족세력을 민족통일전선에 묶어세울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45 년 12 월에 청년들앞에서 오늘 우리 나라에서 민족통일전선을 굳게 형성하는것은 매우 절박한 과업으로 나서고있다, 우리가 민족통일전선을 튼튼히 형성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혁명력량을 굳게 묶어세우는가 못세우는가, 반혁명세력을 철저히 고립시키는가 못시키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따라서 그것은 우리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된다고 교시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무장한 인민대중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 인민대중의 통일단결된 힘에 의하여 끊임없이 발전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무엇보다도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무장한 인민대중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에 의하여 발전하고있다.

사회주의사회는 사상에 의하여 향도되고 사상을 기본추동력으로 하여 발전하는 사회이다. 만약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을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소홀히 하고 물질적관심성 한면만 내세우면 사람들을 개인의 리익밖에 모르는 개인리기주의자로 전락시켜 사회를 침체에 빠뜨리고 사회주의의 기초를 허물어버리게 된다. 쏘련과 동유럽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붕괴과정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사상을 놓치고 인민대중을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줴버리면 사회의 발전능력이 마비되여 사회주의제도가 무너지게 된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다음으로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무장한 인민대중의 단결과 협력에 의하여 끊임없이 발전하고있다.

사회주의제도가 서면 사람들이 하나의 사상에 기초하여 단결하고 협조할수 있는 사회정치경제적조건이 마련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하나의 사상이 유일적으로 지배하며 근로대중이 공통된 목적과 리해관계를 가지는것으로 하여 그들의 동지적단결과 협조가 강화되게 된다. 특히 사회주의사회에서 사상교양이 심화됨에 따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집단주의로 튼튼히 무장하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게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된 불패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전체 인민이 수령을 중심으로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뭉치고 온 사회가 동지적으로 서로 돕고 이끄는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있는것은 조선식 사회주의의 본질적특징이며 무한대한 힘의 원천이다. 수령을 중심으로 전당, 전군, 전민이 철통같이 뭉친 일심단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적안정과 공고성을 확고히 담보하고있으며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위력한 추동력

으로 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적들에게 없는 그 어떤 특수한 수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체 인민의 일심단결이다. 많은 국제평론가들은 조선인민의 일심단결은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힘을 가진다고 지적하고있다. 조선인민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지도사상,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자기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있다. 이것은 조선의 사회주의가 높은 발전능력을 가진 사회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제 5 장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주의 나라라는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제 1 절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주정치가 실시되는 나라라는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정치적자주성은 자주독립국가의 첫째가는 징표라고 하시였다.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며 따라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완성해나가는 과정에서는 정치에서 자주의 원칙을 반드시 구현하여야 한다. 현실은 정치에서 자주적대를 세운 나라만이 그 어떤 력사의 풍파와 압력에도 흔들림없이 자기 운명을 지켜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무엇보다도 자기 나라 혁명의 리익, 자기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견결히 옹호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자기 나라 혁명과 자기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고 그것을 실현하며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의 존엄을 고수하는데서 그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공갈, 회유에도 굽어들거나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다음으로 모든 문제를 자기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고있다. 조선민주주의공화국에서는 자기 나라의 주객관적조건을 잘 타산하고 그에 맞게 전략과 전술을 세우고 기성리론이나 남의 경험도

창조적으로 대하며 혁명과 건설의 새로운 원리들과 방도들을 적극 탐구하여 적용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다음으로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주체적력량을 강화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주체적력량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기 인민의 힘과 지혜, 자기의 기술과 자원으로 혁명과 건설을 해나가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다음으로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나라들사이의 특권을 반대하고 령토완정과 주권에 대한 존중, 불가침, 내정불간섭,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있다.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식민지민족해방운동과 국제로동운동을 지지하며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강화하는 방침을 견지하고있다.

제 2 절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립적민족경제를 가지고있는 나라라는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오늘 세계는 금융생산그룹들과 이른바 《발전된 문명국가들》이라는 큰 맹수들의 책동에 직면해있다. 아프리카나라들의 운명 즉 끊임없는 공민전쟁, 생산력파괴, 집단소멸과 같은것을 놓고 경제에서 자립의 길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것을 다시 한번 절감할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진정으로 경제에서 자립을 보장한 결과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겪지 않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무엇보다도 경제의 부문구조를 다방면적으로, 종합적으로 완비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확고히 틀어쥐고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전후 그처럼 혹심하게 파괴되였던 경제를 불과 2~3년사이에 복구하였으며 남들이 옹근 한세기 지어 수세기에 걸쳐 수행한 공업화의 력사적과제를 불과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수행하고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를 튼튼히 쌓

을수 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다음으로 경제의 모든 부문을 현대화된 기술로 장비하고 모든 생산과 경영활동을 과학적토대우에서 진행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최단기간내에 세계의 앞장에 서기 위하여 남이 걸어온 발전단계들을 순차적으로 따라가는 식으로가 아니라 대담하게 뛰여넘으며 최첨단기술들을 개발하여나가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다음으로 자체의 튼튼한 원료, 연료, 동력기지에 의거하여 경제를 발전시키고있다.

우리는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는 자립적민족경제야말로 반세계화의 선구자라고 말하고싶다.

제 3 절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위적국방력을 가지고있는 나라라는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외세의 군사적도발과 위협, 압력이 끊임없이 계속되고있는 조건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천리혜안의 예지로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조선인민군을 건설하고 강화발전시키는데 특별한 주의를 돌리시였다.

제국주의는 전쟁의 항시적근원이며 제국주의에 의하여 국토가 분렬되여있고 침략세력과 직접 맞서 장기간 사회주의건설을 해오고있는 조선에서는 어느 한시도 침략과 전쟁의 위험이 떠나본적이 없다. 60 여년간 정전상태에 있는 조선인민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강력한 국방력을 건설하여왔기에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언제나 승리할수 있었으며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여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제국주의자들앞에서 평화를 구걸하지도 않는다고 교시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무엇보다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참다운 혁명군대를 가지고있다.

조선에서는 혁명과 건설의 전기간 언제나 인민군대를 강화하는데서 군인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왔으며 이 사업을 인민군대강화의 관건적인 고리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여왔다. 오늘 인민군대가 정치사상적으로 위력한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의 대부대로 철저히 준비된것은 전군을 최고사령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고 모든 장병들을 최고사령관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당과 수령의 위업을 총대로 굳건히 사수할 총폭탄용사들로 키우기 위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온 고귀한 결실이다. 조선에서는 현대전의 특성과 첨예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를 자기식의 독특한 전략전술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군대의 군사기술적준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혁명적조치들을 취하고있다. 인민군대는 자체의 튼튼한 국방공업에 의거한 현대적인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로 장비되였으며 원쑤들을 단매에 소멸할수 있는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불패의 혁명강군으로 자라나게 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다음으로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를 확립하고있다. 조선은 령토도 작고 종심이 얕으며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지역과 지대들이 요새화되고 모든 진지들이 현대전의 요구와 나라의 지형조건에 맞게 튼튼히 꾸려졌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군사가 전국가적, 전인민적사업으로 전환되고 전체 인민이 군사를 성실히 배움으로써 한손에는 마치와 낫을, 다른 손에는 총을 들고일단 적들이 덤벼들면 도처에서 침략자들을 소멸할수 있게 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다음으로 자체의 국방공업을 믿음직하게 발전시키고있다. 조선에서는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켜나갈데 대한 독창적인 로선을 견지하고있다. 조선인민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자체의 국방공업발전에 커다란 힘을 기울여왔다. 그리하여 그 어떤 대적도 단매에 쳐부실수 있는 강위력한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갖추어놓았다.

제 6 장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선군으로 위용떨치는 강국이라는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제 1 절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선군으로 반제대결에서 승리하는 강국이라는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선군정치에 의하면 총대를 강화하는 기본목적은 무엇보다먼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데 있는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그 누구를 공격하려 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전혀 아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제국주의》에 뒤떨어지지 말아야 한다는것만을 의미한다. 이때 총대의 힘은 총대를 쥔 사람들의 사상에 있으며 《사상이 없는 총대는 막대기보다 못하다.》

모든 문제해결에서 군사를 앞세우는 선군정치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드신 그때부터 보다 뚜렷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선군정치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온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과 인민의 자주성을 보장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무엇보다먼저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사상공세를 성과적으로 짓부셔버리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기 위하여 반동적인 사상공세에 열을 올리고있다. 이 분야에서 치렬한 사상투쟁은 사생결단의 싸움을 숨기는 형식들로 되였으며 일반적으로 《심리전》이라는 술어로 표시되였다. 이 심리전은 그 수행을 위한 각이한 수단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이색적인 사상의 침투가 철저히 엄금되여있다. 선군정치는 군인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 그들의 사상정신적풍모를 가장 숭고한 높이에 이르게 하고 전체 인민이 혁명적 군인정신을 따라배워 군대와 인민의 사상의 일치, 투쟁기풍의 일치를 확

고히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사상진지를 불패의것으로 더욱 튼튼히 다지도록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다음으로 제국주의와의 정치외교적대결에서도 승리하고있다.

조선의 정전상태에 대하여 보기로 하자. 구질구질하고 허위적인 정전상태는 조선반도에서의 실제적인 평화구축도, 평화협정체결도 허용하지 않는 이른바 《법적》근거로서 침략자들은 있는 힘을 다하여 이것을 지탱하고있다.

이른바 《정전》을 청산한것은 새형의 세계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결정적인 시도로서 커다란 국제적의의를 가진다. 무엇부터 시작하든 세계전쟁을 막고 전쟁도발자들을 폭로하고 격파하여야 한다. 이것은 세계적의의를 가지는 사실이다. 침략자들은 설복으로 멈춰세울수 없으며 오직 강경고압자세로 평화에로 나오도록 만들어야 한다.

제 2 절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선군으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나가는 강국이라는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불패의 군력에 의거하여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적극 추동하는것이 바로 선군혁명로선이다.

선군정치에 의하여 조선의 군사적위력이 불패의것으로 다져지게 되였다.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되고 군사기술적으로 고도로 현대화된 무적필승의 강군을 가진 나라, 총대중시, 군사중시가 사회적풍조로 되고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가 확고히 실현된 군사강국으로 되였다.

선군정치에 의하여 조선의 정치사상적위력도 더욱 공고화되였다.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한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이 강화됨으로써 혁명의 주체가 튼튼히 꾸려지게 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 경축행사를 통하여 조선은 당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철통같이 뭉친 일심단결의 위

력과 양양한 전도를 만천하에 과시하였다. 10월의 경축광장에 펼쳐진 격동적인 화폭들은 핵폭탄을 터뜨리고 인공지구위성을 쏴올린것보다 더 큰 위력으로 누리를 진감하였으며 일심단결과 총대를 필승의 무기로 틀어쥐고 투쟁하는 조선의 힘찬 진군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을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선군정치로 하여 조선의 정치사상적위력과 군사적위력이 비할바없이 강화된 조건에서 문제는 경제건설을 어떻게 다그치는가 하는데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무엇보다도 인민군대를 사회주의건설의 기수, 돌격대로 내세우고 그의 사상정신과 투쟁기풍으로 사회주의건설전반에서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게 하고있다.

희천발전소와 마식령스키장을 비롯한 창조물들마다에는 당의 구상을 받들고 가장 어렵고 힘든 전투장들에 달려나가 물불을 가림없이 투쟁한 인민군군인들의 불굴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 영웅적위훈이 깃들어있다. 인민군대가 사회주의건설의 진격로를 열어나가기에 부강조국의 미래가 더욱 앞당겨지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다음으로 전체 인민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나가도록 하고있다.

강계정신, 성강의 봉화, 라남의 봉화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을 분발시켜 생산적앙양에로 불러일으켰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는 전례없는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였다.

로씨야사람들은 강위력한 국가를 건설하는데 기여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공헌을 높이 평가하고있다. 이것은 《**김정일**동지는 **김일성**동지와 함께 세기를 이어 평범한 나라였던 조선을 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울수 있었다.》라고 한 정치평론가 레베제브의 말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제3절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선군으로 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는 강국이라는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조선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세월 한강토에서 단일민족의 혈통을 이

어오면서 찬란한 문화를 창조하여왔다. 이러한 조선민족은 외세에 의하여 지난 세기 40 년대 나라가 북과 남으로 갈라져 민족사의 장장 큰 불행을 겪어오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도이췰란드는 전승국들의 점령지역으로 갈라졌다. 이것은 침략을 감행한 나라, 전범국에 한하여 완전히 응당한것이였다. 그러나 원동에서는 사정이 완전히 달랐다. 전쟁의 장본인인 침략적인 일본이 갈라진것이 아니라 그 피해국인 조선이 분렬되였다. 이러한 부당성은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민족적비극이였다. 이렇게 조선을 분렬시킨 죄는 전적으로 외세에게 있다.

선군정치는 오랜 초미의 문제인 나라와 민족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도 유익하다. 선군정치는 통일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막고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불을 지피려는 새로운 시도들을 방지하는 담보로 된다. 조선이 선군의 총대를 높이 들고 적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게 되자 적대세력들은 조선에 대한 붕괴전략의패배를 인정하고 관계를 가지는데로 나오게 되였다.

민족자주의 원칙,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일관된 선군정치에 의하여 2000 년 6 월 13 일부터 15 일사이에 평양에서 분렬이래 처음으로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북남최고위급회담이 마련되게 되였으며 6.15 북남공동선언이 세상에 나오게 되였다. 2007 년 10 월 평양에서는 또다시 북남수뇌상봉이 마련되고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한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채택되였다.

조선민족의 통일운동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이러한 경이적인 사변들은 결코 세월이 가져다준 우연이 아니라 세계정치구도를 주름잡아나가는 선군의 위력에 의하여 마련된 위대한 승리였다.

조선통일의 력사적위업이 이룩되는 날까지 6.15 의 리념과 의지는 절대로 달라지지 않을것이다. 그것은 조국통일이 온 겨레의 지향이기때문이다. 아무리 난관이 많다고 해도 앞으로 실현될 통일은 기초가 든든

하다는것을 지적하여야 할것이다.

맺는말에서 자주, 선군, 사회주의를 근본리념으로 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성과와 경험은 우리의 투쟁의 귀감으로 된다고 하면서 조선의 현세대가 앞으로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전생애를 거쳐 고수하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그 높은 리념들을 지켜나갈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